

이기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겨야 이긴자가 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매 시간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야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생각이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지 시간 시간이 자기 생각을 점검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생각이 움직인다면 그게 마귀 생각이었으니.

그리고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요, 악의 영이고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영입니다. 자기 생각이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생각이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이 움직여지면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를 닦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이 이 정도를 생각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로 도를 닦는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 시간이 자기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도를 닦는다면 그건 참말로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수 십 년 동안 영의 싸움을 해야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생각을 죽여 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

이 움직이도록 그런 영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그런 싸움을 싸워서 20대에 접어들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생각이 움직이는 그러한 차원에서 투쟁을 하기 시작해서 수 십 년만인 50살 되던 해에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싸움을 수십 년에 걸쳐서 해서 완성자가 되고 이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이긴 것입니다. 이겼다가 뭐 기운이 세가지고 기운이 약한 사람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는, 100% 마귀의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는 그 정도가 되어야 그게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투쟁과 상당한 영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고로 하늘을 찌를 정도의 통곡 소리를 내면서 울기도 울었던 것입니다. 영의 싸움에서 단번에 이겨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의 싸움에서 싸울 때마다 지는고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아니면 이슬을 내릴 수 없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논하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적인 구원론과 불경적인 구원론을 논한 사람이 없었던 것



구세주 조희성님

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논하는 걸 보아 하늘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론을 논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사람이 아니면 이슬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이긴자는 분신의 능력이 있는고로 분신의 몸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서도 기운이 센 사람은 기운이 없는 척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내 놓을 때마다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인류 역사가 6000년이 흐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논한 사람이 없

었던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구세주가, 생미륵불이, 정도령이 한 사람인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가 되고, 다 생미륵불이 되고, 다 정도령이 되어야 이 세상이 하늘나라 극락세계, 예뎌동산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인간의 마음을 제거해야

사망의 신을 이기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 이긴자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탈을 벗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승리제단 나온 지 오래 되고 이 진리 체

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말로 여러분들!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게 나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스님들이 많이 있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는고로, 나를 죽이는 거는 바로 이기신 하나님밖에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신 하나님밖에 죽일 수가 없는고로 이기신 하나님에게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말쑥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백 번, 천 번 제사보다 순종함이 더 귀하다.”하는 말이 쓰여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이긴자가 되고, 순종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이제 뭘 좀 안다고 머리를 굴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100%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사에서 하늘나라 물이 흘러

오늘날 이 사람이 구원론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론도 논하는데 여러분들 성경과 불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로 하나님이 말씀하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이지 죄 짓고 마구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로 성경이나 불경은 바로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승리제단 식구라야 그 성경 말씀이나 불경 말씀이나 격양유복에 대한 말씀을 읽을 자격이 있고 또한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오늘날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긴자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자가 없다.”하는데 거기에 소사라고 쓰여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 말씀은 승리제단 식구들에게 해당 되는 말씀이고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이나 불경 말씀을 볼 자격이 있는 거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하는 말씀이 바로 소사에서 하늘나라 물이 흐른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이나 이해가 가지 이제 다른 종교가들한테 얘기해 봐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23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하

피의 통일

피의 통일이란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피의 작용이므로 마음이 같아지면 행동도 하나가 된다. 인류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평화와 행복의 세상은 먼저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지향하는 목적이 같아지면 모든 일은 이루기가 쉽다.

한 사람의 능력과 힘을 개발하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한다면 그 힘과 능력은 상상 이상의 큰 힘으로 발휘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강조되는 말이다.

바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참으로 올바른 마음 바람직한 뜻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힘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 발휘된다면 그 결과는 인류와 지구촌 곳곳에 악한 영향, 파괴와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선한 힘이 모여져서 올바른 영향, 지상천국과 같은 세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러한 기대와 염원은 과거 역사를 통해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술하게 벌어진 일들이었음을 우린 지식으로 학습하고 배워왔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누구나 하나되고 통일된 세상을 바라지만, 세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육체와 영혼, 물질과 의식, 현세와 내세, 가진자와 못 가진 자,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 등 분열과 분리된 세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된 생명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의 순환적 흐름을 막아 버리면, 사람의 기가 막혀 병이 생기듯이 우주적 생명은 파괴와 재앙으로 화답하게 된다. 지금의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기상이 변화 천재지변, 국가와 민족 간의 첨예한 대립, 전쟁의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피가 막히지 않고 잘 순환하여야 하듯, 서로 단절되고 불통하던 딱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대 평화와 행복, 자유 세계의 대동(大同)의 열린 장(場)으로 성큼 나아와야 하겠다. 이 세계의 평화와 행복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종교적 변혁만으로는 결코 성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한민족에서 드러난다 천손민족이여! 깨어나 빛을 받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일행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한민족이 통일되는 날 모든 예언은 성취되리라

취될 수 없다. 각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양심으로 지혜와 현명한 처신의 술선수범만이 그 답이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인내하며, 소통하면서 하나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 세계를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건설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천손민족이다. 세계가 인정할 한국 사람은 머리가 우수하고 인정이 많고 정의감이 투철한데, 이런 것은 선한 하나님의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러한

인류가 원하고 바라던 지상천국 건설을 주도할 대업을 주도해 나갈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한국 사람들을 욕심과 이기심에 빠뜨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악마의 간악한 꾀계에 의하여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 있는 상태일 뿐이다.

일단 한국 사람이 먼저 한번 정신 차리게 되는 날, 선한 하나님의 뜻은 급속도로 빠르게 실현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민족의 부흥을 예언하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경-

구미산수 좋은 승지 무극대도(無極大道) 닦아내어 오만년지 운수로다. 나도 또한 신선(神仙)이라 비상천(飛上天)한다해도 이내 선경 구미용담 다시 보기 어렵도다. -수운 <응답유사(龍潭遺稿)>, 용담가-

인지(認知)가 훨씬 밝혀져서 모든 것에 상극(相兪)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위를 분간하여 서로 생불(生佛)이 되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며... -소태산, <대종경(大宗經)>, 전망품 18장.

일찍이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해체의 수순의 과정의 공통된 역사법칙성을 규명한 방대한 그의 저술 <역사의 연구>에서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몰락과 동양의 부상을 예견한 바 있다. 성경에서도 서구의 몰락과 동양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창세기 9장 26-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살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하시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종, 가나안은 흑인의 조상이 각각 된다. 백인종은 한 때 물질적으로 창대하나 결국은 심오한 정신문명을 가진 황인종에게 굴복하고 만다는 것이다.

또 그리 멀지 않는 시점에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한국은 동방의 빛으로 세계를 교화시킨다”고 시로 읊은 적이 있다.

한민족이여!! 이제 깨어나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선한 양심의 피가 뜨겁고도 강하게 우리 민족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 이 땅위에 하나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지상천국)을 열어주시게 할 섭리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김주호 기자